

道·14개 시군, 전북형 뉴딜 '원팀'

도·시군 협의체 출범 영상회의로 뉴딜 공유·협력 모색 군산 새만금 집적화단지 조성 등 미래 이끌 신사업 제안 다채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전북형 뉴딜의 정보 공유와 협력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훈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 '도·시군 협의체 Kick-off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행정부지사와 시군 부단체장이 '도·시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시군에서 전담부서를 구성해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뉴딜 전담부서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뉴딜 사업과 시·군 간 협업사업 등을 발굴해 규제 혁신 및 제도 건의 사항 등의 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먼저 전북도는 시·군에 뉴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확보를 요청했다.

각 시·군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갖추고, 일부 시군에서는 내년에 상설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북도와 뜻을 함께 했다.

전북도가 12월 중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군에서도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그 내용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해 전 시군에 뉴딜 확산을 공고히 한다는 복



지난 2일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북형 뉴딜 정보 공유와 협력 확대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과 '도·시군 협의체 Kick-off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 제공>

안이다.

이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에 대한 시·군별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산단 RE100(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100%)을 활용한 집적화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방안, 비대면 시장 성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익산시는 '빛반응 연구데이터 댐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빛 생성 데이터와 빛 가공을 통한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정읍시는 스마트 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과 악취배출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남원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 도입과 기후위기 생태전환 종합파크 조성 사업을 편다.

순창군은 그린바이오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제안했으며 농생명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효소제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100억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물권제협약습벨트 조성 사업을 제안한 고창군은 360억원의 사업비로 야외학습장(갯골 관찰로, 생태습지 관찰데크), 일몰경연계 가로 데크전망대 및 생태공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성과를 적시에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기후위기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을 시·군과 함께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읍 주민들 '전두환 흔적 지우기'

35년 전 순방 '1천만원 하사' 기념비 철거...송령마을 총회서 결정

35년 전 정읍시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순방 기념비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민족문제연구소 정읍지회에 따르면 정읍시 송산동 송령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월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순방 기념비를 철거했다.

철거된 기념비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1983년 1월2일 송령마을을 방문한 기념으로 2년 뒤인 1985년 1월에 세워졌다.

기념비에는 '새마을훈장을 받은 마을 주민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금일봉으로 1030만원을 하사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지역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독재자 방문 기념비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해왔으나, 마을 자체적으로 만든 기념비인 까닭에 행정기관이 나서지 못했다.

주민들은 지난 8월 자발적으로 총회를 열고 '잘못되고 아픈 역사를 지우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시 주민 20명이 총회에 참석해 이 가운데 19



명이 철거에 찬성했다. 권대선 민족문제연구소 정읍지회장은 "전두환 씨가 아직도 반성이나 사죄를 전혀 하지 않는 행태에 분노한 마을 주민들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독재자의 흔적을 없애기로 한 송산동 주민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 운영

용역비 3억원 절감 효과 기대

정읍시는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발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체 합동 설계단은 건설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시설(토목)직 공무원 4개 반 15명으로 구성됐다. 설계단은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250여 건 37억원 규모에 대한 자체 실시설계를 맡게 된다.

정읍시는 합동 설계단 운영을 통해 재정 신속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

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조사와 측량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이번 합동 설계단 운영을 통해 약 3억원의 용역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합동 설계단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물론 상반기 사업의 재정 조기 집행과 발주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청년 예비 창업인들이여 오라!

순창군 '팝업 플랫폼' 추진...창업 교육·제조·판매·정보 공유

순창군이 자유로운 청년창업 제조공간인 '팝업 플랫폼'을 조성해 청년 창업희망자들의 꿈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역 청년농업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한 '팝업 플랫폼 조성사업'이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이미 관련 부지와 건물 매입을 완료한 군은 기본계획도 마무리했고 이달 중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4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팝업 플랫폼'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뒷편 기존 복분자공장을 대상으로 리모델링과 증축을 거쳐 조성된다.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과 오픈 오피스를 비롯해 수제맥주와 발효커피 로스팅, 전통주, 공유주방,

베이커리 등의 교육과 제조·판매공간이 들어서고 2층에는 공유오피스와 공유회의실과 방송 스튜디오 등이 갖춰진다

별도의 청년창업실습공간에는 생활목공과 문화 콘텐츠 제작공간이 조성되며 공유하우스, 정원형 노천극장 등이 들어선다.

공유하우스와 청년창업실습공간은 조성이 완료되는 내년 9월부터 운영되며 공유주방을 제외한 공유오피스나 회의실, 방송 스튜디오는 2022년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제맥주나 발효커피 로스팅, 전통주와 공유주방 기반 시설 등은 동부권 식품클러스트 사업을 통해 10억원이 투입되어 하는 관계로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인구 감소에 쇠락하는 익산

인구정책 효과 미미...순천에 36명 차 '호남 3대 도시' 타이틀 내줘

익산시가 호남 3대 도시의 위용을 순천시에 빼앗겼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명성은 쇠락하고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익산지역 인구는 28만2582명으로 순천 인구 28만2618명에 비해 36명이 뒤처진다.

익산시는 그 동안 호남에서 광주와 전주에 이어 3번째 인구 규모를 자랑하며 3대 도시로의 명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인구가 2018년 1월 30만명 마지노선이 무너진 후 감소세가 지속돼 28만명 이하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8만549명의 인구를 보유한 전남 여수시에게도 추월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수와 익산 인구 차이는 고작 2033명 차이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인구 감소 폭이다.

11월 현재 익산은 265명 줄어든 반면 순천은 58명, 여수는 35명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인구 감소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도시 경쟁력 하락과 함께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지방세 감소와 행정기구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인구 유출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까

지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돼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

익산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40대 이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변화와 도시 미래전략 수정을 주장하며 행정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출산·보육 정책 강화, 쾌적한 문화환경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정책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익산 주수바로 갖기 운동 등을 추진하며 인구 유출 문제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호남 3대 도시 위용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